

독해력의 모든 것

문장에서

평가원을 지나

고난도 리트까지

‘막연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곱씹으며 이해하는 것이 과연 독해력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일까?’

‘학창시절부터 꽤나 국어를 잘했고, 수능 시험장에서도 나름 괜찮은 성적을 얻었던 나의 독해력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그 답을 담았습니다.

1주차_‘문장 이해’와 ‘지문 독해’의 기본

오르비클래스 윤응식T

문장 독해의 모든 것_1

해설

#1.

- (1) A. 현대의 환경 위기는 <인류의 생존 문제일 뿐 아니라> (근대 이후 구현되어 온) B.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 (2) 즉, A. 그것은 '생존'을 빌미로 하는 신유형의 독재나 제국주의를 유발함으로써 B. 자유, 인권,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민주주의나 세계 시민주의 등의 이념들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인 것이다.

[LEET]
○○○

문장을 독해할 때, 한 문장 속에서 많은 것을 이해하려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 두 번째 문장 독해를 할 때, 일부 수험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것이... 왜... 생존을 빌미로 하는 신유형의 독재... 제국주의...를 유발하죠? 이런 게 왜 A를 위기에 처하게 하는 건가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지문에서 의문을 품지 않은 것에 의문 품지 말기"
있는 그대로, 그것 => 독재 or 제국주의 => A를 위기에 처하게 함. 이렇게 치고 나가셔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통해, 혹은, 다음 문장과 엮어서 독해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 (1)과 (2)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에서 과정을 추가하여 (1)을 구체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1) 속 A와 B가 (2)에도 등장함으로써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다고 독해하셔야 합니다.
"현대의 환경위기는 ~~~한 과정을 통해 인본주의적 가치들을 위협한다."

#2.

- (1) 철학적 근대는 C.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A. 그대로의 수용도 B. 원천적 거부도 선택할 수 없는 딜레마적 문제이다.
- (2) C. 숭고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지성적·실천적 자율성을 주창한 철학적 근대를 통해 정초되었기 때문이다.

[LEET]
○○○

강조하기 위해 '비교'를 활용한다.
=> 수능뿐 아니라 대부분 언어시험, 혹은, 국어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수능 독서처럼 정해진 분량 내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독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에서도 철학적 근대를 A할 것인지, B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이런 식의 필자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필자는 철학적 근대를 사랑해야 할지, 버려야 할지.. 고뇌에 빠진 듯합니다.

반복되는 구조에 주목하자.
=> 수능 국어에서 여러 가지 문장이 반복됩니다. 내용은 절대로 겹치지 않지만, 문장 구조, 형식은 반복됩니다. 이런 것을 눈에 잘 바라봐야 합니다.
이 두 문장에서는 '인과관계'겠지요.

(1) 내에 인과관계가 있지요! 관계를 잡을 때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경시할 수 없는 미덕을 지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고뇌,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지요.
(1)과 (2)도 인과관계로 엮여있네요. (2)이기 때문에 (1)이다.

여기서 #1.에서 남긴 교훈을 이용해 보자면,
(1)_철학적 근대가 '딜레마적 문제'를 가지는 이유 C 때문이다. (2)_C는 철학적 근대를 통해 만들어졌다.
즉... 철학적 근대가 C를 만들어서 B만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교난이도 TIP]
필자는 왜 #2와 같은 문장을 썼는지 조금 더 머리를 굴려봅시다. 언어 감각을 기르는 시간입니다.
왜 #2.를 썼을까요?
철학적 근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일까요? 혹은 버리기 위해서 일까요?
아마 이 문장 앞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철학적 근대는 안 좋다!!' 근데... #2.를 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어서 마냥 안 좋을 수만은 없다!!'
이런 흐름일 듯합니다.

#3.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A.(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B.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B.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B.‘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기판력이 있는 판결에 대해서는 B.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다.

[평가원]
○○○

기다려야, 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다.

=> 위에 두 단락에서도 그러했겠지만, 학생들은 시험장에서 낯선 어휘, 어려운 소재가 나오면 당황합니다.

이럴 때, 정보를 정보 그 자체, 혹은 기호로 처리하면서, 그 낯선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1.에서 “지문에서 의문을 품지 않은 것에 의문 품지 말기”와 엮어서 연습해보세요!)

사실 #3은 한 가지 정보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이 A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B가 된다. B는 이러한 것이다.

판결 확정... 기판력... 어려운 어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린다면 평가원은 꽤나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진행합니다.

A 속 내용도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저의 해설은 실전에서 A 속 내용에 매몰되기 보다는 A 전체를 일반 판결이 B가 되는 ‘조건’이라고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4.

(1)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C.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2)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A.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B.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3)일부 유학자들이 A.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평가원]
○○○

정보의 분류에 주목해라.

=> #2.에서 비교를 통해 강조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연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어 지문은 정보를 설명할 때, ‘체계’를 잘 잡아놓습니다. 상위정보가 2개 혹은 3개의 하위정보로 분류되지요. 이 관계를 잘 잡고, 분류해야 합니다.

C가 영향력이 좋았는데 ‘C 중 A’는 ‘C 중 B’에 비해 영향력이 미미하였답니다.

문장 하나에 매몰되지 않아야 이런 식의 ‘분류’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난이도 TIP]

#2.에서 한 것과 유사한 작업을 한 번 더 해봅시다. 수능 국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시간이랄까...

#4.의 (2) 문장에서 B가 인기가 많았다고 했는데... (3)에서는 A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특 던집니다. 물론... 극히 적었다고 이야기 했지만요.

이 흐름 속에서 저는 어떤 사고를 할까요?

[1] 왜 A가 인기가 없었을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좋아하는 애들은 왜 일까요?

저는 문장 하나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런 사고를 합니다!

#5.

사법(私法)은 A.개인과 개인 사이의 재산, 가족 관계 등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이 법의 영역에서는 B.‘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결정 등은 B.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사법에 속하는 법률의 규정과 어긋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B.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평가원]
○○○

평가원은 친절하다.

=> 이번 문장 독해 중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 기억합니다.

‘평가원은 친절하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한 문장 내에서의 친절보다는 문장들을 통해 그 친절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문장 하나에 매몰되면 안 되는 이유지요.

#5.도 마찬가지입니다. A는 그저 ‘사법’의 정의일 뿐입니다. 여기에 B가 적용되지요. 그렇다면 조금은 낯선 B는 뭘까요?

제가 위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평가원은 친절하니까...

다음 문장에서 설명해 줍니다.

B는 ‘당사자들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문장을 보니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네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독해해볼까요?!

2주차 문장 독해를 학습하기에 앞서 이 5문장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꾸준히 학습하기 바랍니다!!

그럼 20,000,...

지문 독해의 틀

문장에서

평가원을 지나

고난도 리트까지

1.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한시간 : 5분]

‘죽이는 것’과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의 실제 적용 기준에 대해 다음 주장들이 제안되었다.

갑: ‘죽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를 시작하는 것이고,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지 않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을: ‘죽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를 시작하거나,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반면에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지 않는 것이다.

병: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를 시작하는 경우 ‘죽이는 것’이며,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지 않는 경우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할 경우, 그 장애물이 자신이 제공한 것이라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이라면 ‘죽이는 것’이다.

<사례>

(가) A는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발견하였다. A가 구조 요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라면 그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A는 ㉠ 구조 요원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아이는 죽었다.

(나) 어떤 환자가 심각한 병에 걸려 의사가 제공한 생명 유지 장치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장치의 도움이 없었다면 환자는 곧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B가 의사 몰래 병실에 들어와 ㉡ 장치를 꺼 버렸고 그 환자는 죽었다.

(다) 어떤 사람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특정한 물질을 투입받지 못할 경우 죽게 되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 물질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C는 자신의 몸과 그 환자의 몸을 튜브로 연결하여 그 물질을 전달하였다. 며칠 동안 그 물질을 전달하고 있던 C는 마음이 변하여 ㉢ 튜브를 제거하였고, 그 직후에 그 환자는 죽었다.

—< 보 기 >—

ㄱ. ㉠ 행위는 갑과 을에 따르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병에 따르면 ‘죽이는 것’이다.

ㄴ. ㉡ 행위는 갑에 따르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을과 병에 따르면 ‘죽이는 것’이다.

ㄷ. ㉢ 행위는 갑과 병에 따르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을에 따르면 ‘죽이는 것’이다.

- ① ㄱ ② ㄷ ③ ㄱ, ㄴ
-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지문해설]

지문에서 갑, 을, 병은 특정 행위가 “죽이는 것”에 해당하는지 “죽게 내버려 두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갑, 을, 병이 제시한 판단 기준이 되는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의 연쇄를 시작하는 것”,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지 않는 것”,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병의 경우에만 추가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자신이 제공한 것인지, 타인이 제공한 것인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례에 제시된 특정 행위가 위 3 가지(병의 경우 4 가지) 행위 중 굳이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지문에 제시된 내용만을 가지고 기준과 사례의 비교를 통해 판단을 해야 하며 판단에 있어서 본인의 주관이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가)의 사례는 수영장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이가 제시되었으며 이 때 A는 구조 요원에게 알리지 않아 아이의 죽음을 막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를 막지 않는 것에 해당할 것입니다.

(나)의 사례는 병에 걸려서 의사가 제공한 생명 유지 장치의 도움 없이는 죽게 되는 환자가 제시되었으며 이 때 B는 타인(의사)가 제공한 생명 유지 장치를 꺼버려 환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B의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 때 장애물은 타인이 제공한 것입니다.

(다)의 사례는 병에 걸려서 C가 제공한 특정 물질 없이는 죽게 되는 환자가 제시되었으며 이 때 C는 자신의 특정 물질의 제공을 중단하였고 환자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C의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고 이 때 장애물은 자신이 제공한 것입니다.

[1번 문제해설] 정답: ④

ㄱ. ㉠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사건 연쇄의 진행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갑과 을에 따르면 이 행위는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며 병에 따라서도 “죽게 내버려 두는 것”에 해당합니다.

ㄴ. ㉡ 행위는 사건 연쇄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갑에 따르면 이 행위는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을에 따르면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장애물은 의사가 제공한 것이며 B 자신이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병에 따르면 이 행위는 “죽이는 것”입니다.

ㄷ. ㉢ 행위는 사건 연쇄 진행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갑에 따르면 이 행위는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고 을에 따르면 “죽이는 것”입니다. 이때 이 장애물은 C 자신이 제공한 것이므로 병에 따르면 이 행위는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2.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제한시간 : 5분]

항원변이는 감염원이 자신의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 항원을 변형시켜 숙주가 기존 감염을 통해 획득한 기억 면역시스템을 회피하는 메커니즘이다. 바이러스의 항원변이에는 항원연속변이와 항원불연속변이가 있는데, 항원연속변이는 하나의 바이러스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항원이 서서히 변하는 것이고, 항원불연속변이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혼합되는 과정을 통해 항원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다.

항원변이에 대한 연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와 B를 대상으로 주로 진행되어 왔다. 세균에 비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서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나는 이유는 유전체의 복제 과정에서 교정기능이 없는 RNA 중합효소가 사용되기 때문이다.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정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보다 A에서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와 B는 8개의 절편으로 이루어진 유전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유전체를 가진 바이러스들이 한 세포를 감염시켜 새로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경우 8개의 절편은 다양한 조합으로 재편성될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는 주로 사람만 감염시키지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는 사람뿐 아니라 돼지, 그리고 다양한 조류도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한 인플루엔자는 사람,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모두 섞인 새로운 형태로 밝혀졌다.

<보 기>

- ㄱ. 항원연속변이를 통한 항원의 변화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보다 B에서 더 크고, 항원불연속변이를 통한 항원의 변화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보다 A에서 더 클 것이다.
- ㄴ. 어린 시절 특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A와 B에 노출되어 각각에 대한 기억 면역이 생긴 사람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 때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보다 A에 감염될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 ㄷ. '평년보다 다소 증가한 인플루엔자의 소규모 유행'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의 대규모 유행'이 발생했다면, 이 유행은 항원불연속변이보다 항원연속변이에 의해 일어났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 ④ ㄱ, ㄷ ⑤ ㄱ, ㄴ, ㄷ

[지문해설]

지문에서 바이러스의 항원변이로 항원연속변이와 항원불연속변이를 제시하며 각각의 정의를 구분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지문을 읽을 때 항원연속변이와 항원불연속변이를 잘 구분해서 읽고 지문 초반에 잡아둔 이 대립을 문제 풀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지문에서는 바이러스 A와 B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에서 제시된 바이러스 A와 B의 설명을 각각 잘 구분하여 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때 우리는 바이러스 A와 B에 대한 생각에 매몰되어 처음에 잡아둔 항원연속변이와 항원 불연속변이의 대립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에서는 항원연속변이와 항원불연속변이가 각각 바이러스 A에 해당하는지 바이러스 B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판단 기준을 지문에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 판단 기준은 지문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항원연속변이와 항원불연속변이의 정의에 대해 각각 제시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내용만을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하며 자신만의 지문 바깥의 사고나 주관이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번 문제해설] 정답: ①

ㄱ. 지문을 보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B보다 A에서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항원연속변이는 돌연변이가 축적되는 과정을 통해 항원이 변하는 것이므로 돌연변이가 더 잘 일어나는 바이러스 A가 항원연속변이를 통한 항원의 변화가 클 것입니다. 또한, 지문에서는 바이러스 A가 사람뿐 아니라 돼지, 그리고 다양한 조류도 감염시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항원불연속변이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혼합되는 과정을 통해 항원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이므로 바이러스 A가 항원불연속변이를 통한 항원의 변화가 클 것이다.

ㄴ. 항원연속변이든, 항원불연속변이든 항원 변화가 바이러스 A가 더 크므로 바이러스 B보다 바이러스 A에 의해 기억 면역이 생긴 사람이 감염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ㄷ. 전 세계적인 인플루엔자의 대규모 유행은 사람, 돼지,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모두 섞인 새로운 형태로 밝혀졌으므로 이는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혼합되는 과정을 통해 항원이 급격하게 변하는 항원불연속변이에 의해 일어났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한시간 : 14분]

[1] 17세기 초부터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西學)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하였다.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2]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그는 「서국의(西國醫)」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세군징(主制群徵)』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였다. 『주세군징』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관은 담기지 않았다. 대신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의 해부 지식 등이 실려 있었다.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 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心主知覺說)을 고수하였다.

[3]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 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朝廷)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러던 중 19세기 실학자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흠손의 책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 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하였다.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지각적·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4]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였다.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전체신론(全體新論)』 등 흠손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 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인체를 ‘신기(神氣)’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기계적 운동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흠손은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원인으로 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지문해설]

수능 국어, LEET 등 언어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교’입니다. 필자가 본인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두 대상을 ‘비교’하시요. A와 B가 순서대로 등장한다고 했을 때, 독해시 어떻게 강약을 두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훈련해야겠지만, 지문을 독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1] 문장 독해 파트에서 설명 드린 문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남겼습니다.
 ‘서양의 과학 지식은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의학은 미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의학에 대해 논평을 했다.’
 => ①서양 의학은 왜 미미했을까? ②뭐라고 논평했을까?

[2] 사실 ‘의학에 대한 논평’이 중심 소재가 되는 것은 [1]단락이 아닌 2단락 초반부에 잡으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게 더 현실적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서 대립은 ‘유학자’ vs ‘서양’ = ‘이익’ vs ‘아담 샬’
 저는 [2]단락에서 최대한 힘을 뺐습니다. 글의 초반부에 등장한 정보들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보다는 후반부 정보와 관계지어 이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죠.
 => ‘주세군징’에 있는 것 vs 없는 것
 => ‘이익’이 아담 샬에 동의한 것 vs 반대한 것
 이렇게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3]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은 미미했다고 합니다...
 지문 전체를 읽는다는 것은... 이 부분을 독해할 때 1단락으로 눈이 갔어야 합니다. [1]단락 속 ㉠과 같은 말을 하고 있고, 다음 문장에서 ㉡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셔야 합니다.
 ‘그러던 중 최한기는 ~ 흠손의 책을 접한 후~’
 이 부분에서 눈이 번쩍! 하셔야겠지요.
 최한기 vs 흠손
 우리 이 구조 어디서 봤죠? [2]단락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2]단락으로 눈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흠손의 책에 해부학, 지각, 생리적 기능이 중심이었다를 보고 아담 샬 책은 어땠더라? 하고 눈을 위로 올려서 아담 샬은 해당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것을 머리에 새겼습니다!

[4] 최한기로 글의 흐름이 쏠렸습니다. 최한기의 내용에 집중하되 ‘흡습’과의 비교가 진행될 수도 혹은 ‘이익’과 비교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최한기는 ‘몸기계’로 파악!
 - 흠손과의 관계 -
 (공통점)흠손의 저서 접한 후 더 강화!
 But.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보았다!
 => 한 문장에서 ‘최한기’와 ‘흡습’을 넣어두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문장을 <정보의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차이점)원인을 다르게 상정함.
 => 흡습 : 창조주 // 최한기 : 신기
 => 이 차이점이 <정보의 결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면 더 좋습니다!

[5] 최한기는 『전체신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 있는 신경계 그림을 접하고,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흠슨의 뇌주지각설(腦主知覺說)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창조주의 섭리로 보고 지각 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의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신론』의 견해를 부정하고, 대신 ‘심’이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지각설이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6] 그러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의 심주지각설이 ‘심’을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그는 신기의 ‘심’으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신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신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신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 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있는 신기가 감각 기관을 통한 지각 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기억으로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신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최한기의 인체관은 서양 의학과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 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문해설]

[5] 최한기에 대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흠슨’과의 비교에 중점을 두면서 읽었습니다.

최한기 => 뇌의 역할과 중요성!, 뇌 = 운동
 흠슨 => 뇌 = 운동 + 지각 주관!
 but.
 최한기 => 반대!! ‘심’이 지각 주관!!

차이점이 딱 보이시죠?! 이렇게 독해해주세요!!
 ‘심주지각설’을 보고 누군가는 [2]단락에서 ‘이익’도 심주지각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눈이 위로 올라가야죠!

[6] 역시나 ‘종래의 심주지각설(이익)’과 비교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최한기와 흠슨의 비교였다면,
 지금부터 최한기와 이익의 비교가 시작되네요!
 정보 분류는 각자 해보시죠!
 흐름을 잘 잡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7] 글이 마무리됩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한시간 : 9분]

[1]신(臣) 유종원(柳宗元)이 엮드려 살펴보니 이런 일이 있었습
니다. 측천무후 시절에 동주(同州)의 하규(下邳)에 서원경(徐元慶)
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버지 상(爽)이 현의 관리인 조사온(趙
師韞)에게 죽었다고 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원수를 찢러 죽인 뒤
제 몸을 묶어 관에 자수하였습니다. 그때 진자양(陳子昂)은 그를
사형에 처하되 정문(旌門)을 세워 주자고 건의하였으며, 또 그 내
용을 법령에 넣어 항구적인 법으로 삼자고 청하였습니다. 하지
만 신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신이 듣기를, 예(禮)의 근본은 무질서를 막고자 하는 것이
니, 만약 예에서 해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자식 된 이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刑)의 근본도
무질서를 막고자 하는 것이니, 만약 형에서 해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관리 된 이가 사람을 죽였다면 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근본은 서로 합치하면서 그 작용이 이끌어지는
것이니, 정문과 사형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문을
세워 줄 일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남용으로서 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사형에 처할 일에 정문을 세워 주는 것은
참람으로서 예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과연 이것을
천하에 내보이고 후대에 전하여서 의를 좇는 이가 나아갈 곳을
모르게 하고 해를 피하려는 이가 설 곳을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하
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법으로 삼아야 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무릇 성인(聖人)의 제도에서 도리를 밝혀 상벌을 정하도록 한 것
과 사실에 터 잡아 시비를 가리도록 한 것은 모두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진위를 가려내고 곡직을 바로 하여
근본을 따져본다면, 형과 예의 적용은 뚜렷이 밝혀집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3]만일 원경의 아버지가 공적인 죄를 지은 것이 아닌데도 사
온이 죽었다면 이는 오직 사사로운 원한으로 관리의 기세를 떨쳐
무고한 이를 괴롭힌 게 됩니다. 더구나 고을 수령과 형관은 이를
알아볼 줄도 모르고 위아래로 모두 몽매하여 울부짖는 호소를 듣
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원경은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서 사는
것을 몹시 부끄럽게 여기며 항상 칼을 품고 예를 실행하려는 마
음을 지니다가 마침내 원수의 가슴을 찢렸으니, 이는 곳곳이 자
신을 이겨낸 행위로서 그때 죽더라도 여한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를 지키고 의를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담당 관리는 마
땅히 부끄러운 빛을 띠고 그에게 감사하기에 바쁠진대 어찌 사형
에 처한단 말입니까.

[4]혹시 원경의 아버지가 면할 수 없는 죄를 지어 사온이 죽인
것이였다면 그것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관리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죽은 것입니다. 법을 원수
로 삼을 수야 있겠습니까. 천자의 법을 원수 삼아 사법 관리를
죽였다면, 이는 패악하여 임금을 능멸한 것입니다. 이런 자는
잡아 죽여야 국법이 바로 설진대 어찌 정문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지문해설]

해당 지문은 “예vs형”, “진자양vs유종원” 두 가지 대립을
잘 잡아서 글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주요한
대립으로 보이는 “진자양vs유종원”의 대립은 잡기 쉬웠을
것입니다.

진자양은 정문과 사형을 동시에 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
고 그 의견에 대해 유종원이 정문과 사형은 동시에 이루
어질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글에 주요한 내용이
니까요.

하지만 지문에서 진자양과 유종원 모두 예(정문)와 형(사
형)을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예vs형”의 대립은 지
문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립은 문제를
풀 때도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1]에서는 진자양과 유종원의 의견이 대립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며 “진자양vs유종원”의 대립구도를 제시합니
다. 우리는 조사온이 서원경의 아버지를 죽였으며 이에 서원경
이 조사온을 죽이고 자수했다는 내용을 꼼꼼하게 잡기 보다는
조사온과 서원경의 관계 정도만 파악하며 글을 읽어 나갑시다.
이 사건에 대해 진자양은 서원경을 사형에 처하되 정문을 세
워주자고 하였으며 유종원은 이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진자양vs유종원”의 대립구도가 드러납니다.

[2]에서는 유종원이 진자양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유종원은 예와 형을 각각 제시하며 예는
정문에 대응되고 형은 사형에 대응된다고 합니다. 이 때 그는
예와 형의 근본은 모두 무질서를 막는 것이므로 예와 형을 적
용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예
에 따른 의로운 행위에 대해 사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사형에
해당하는 해로운 행위에 대해 정문을 세워줄 수 없다는 것입
니다. 유종원은 정문과 사형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며 진
자양을 비판한 것입니다.

[2]에서는 예와 형의 공통점과 적용의 일관성이 제시되어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종원은
예(정문)과 형(사형)을 분명히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논증을 전
개할 때에도 이 둘을 나누고 있으므로 우리도 글을 읽을 때
예와 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읽어야 할 것입니다.

[3], [4]에서는 유종원이 1에서 제시된 서원경의 행위가 예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
게 해야하는지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종원은 [3]에서 서
원경의 행위가 예에 해당한다면 서원경을 사형에 처할 수 없
다고 하고, [4]에서는 서원경의 행위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
정문을 세울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정문과 사형은 동시에 이루
어질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주장하고 있습니다.

[5]진자양은 앞의 건의에서 “사람은 자식이 있고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이어진다면 그 무질서는 누가 구제하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를 매우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에서 이야기하는 복수는, 사무치는 억울함이 있는데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경우이지, 죄를 저질러 법에 저촉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나도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곡직을 따져보지도 않고서 힘없고 약한 이를 겁주는 것이 될 뿐이며, 또한 경전과 성인의 가르침에 심히 위배되는 것입니다.

[6]『주례』에서 “조인(調人)이 못사람들의 복수 사건을 담당하여 조정한다. 살인이라도 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복수를 금지한다. 복수는 사형에 처한다. 이를 다시 보복 살해하면,

온 나라가 그를 복수할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춘추공양전』에서는 “아버지가 무고하게 죽었다면 아들은 복수할 수 있다. 아버지가 죄 때문에 죽었는데 아들이 복수한다면, 이는 무뢰배의 짓거리로서 복수의 폐해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위의 사건을 판단해 보면 예에 합치합니다. 무릇 복수를 잊지 않는 것은 효이며, 죽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의입니다. 원경이 예를 저버리지 않고 효를 지켜 의롭게 죽으려 했으니, 이는 바로 이치를 깨치고 도를 들은 것입니다. 이치를 깨치고 도를 들은 사람에 대해 왕법(王法)이 어찌 보복 살인의 죄인으로 보겠습니까. 진자양은 도리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니, 그것은 형의 남용이며 예의 훼손입니다. 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뚜렷합니다.

[7]신의 간언을 법령에 반영하시어 사법 관리로 하여금 앞의 건의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삼가 아뢰었나이다.

- 유종원, 「복수에 대한 건의를 논박함」

[지문해설]

[5]에서 유종원은 진자양이 “사람은 자식이 있고 자식은 반드시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를 위한 복수가 이어진다면 그 무질서는 누가 구제하겠습니까.”라고 하여 예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비판합니다. 이 때 계속 유종원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진자양이 말한 내용이 잠깐 나오므로 잘 구분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위 진자양의 표현은 실제로 진자양이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5에서 유종원은 예에서 말하는 복수는 사무치는 억울함이 있는데도 호소할 곳이 없는 경우이지, 죄를 저질러 법에 저촉되어 사형에 처해지는 즉, 형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 [6], [7]에서 유종원은 『주례』와 『춘추공양전』에 쓰여있는 바를 바탕으로 서원경의 행위가 예에 합치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서원경을 사형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5], [6], [7]의 부분에서는 유종원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그것에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에 잡아두었던 “예vs형”, “유종원vs진자양”의 대립구도를 끈덕지게 물고 늘어져 이 둘의 대립을 잘 나눈데 노력을 기울이고 그 밖의 내용은 빠르게 지나가는 형태로 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9. 밑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진자양은 서원경의 행위가 예를 어긴 것이라고 보았다.
- ② 호소할 곳 없는 백성에 대한 유종원의 염려가 나타난다.
- ③ 보복 살인의 악순환을 경계하는 진자양의 고심이 엿보인다.
- ④ 유종원은 진자양의 건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 ⑤ 유종원은 서원경의 복수를 효의 실천으로 보아 높이 평가하였다.

[9번 문제해설] 정답: ①

정답 선지 해설:

지문에 따르면 정문을 세워주는 것은 “예”에 따른 것이고 사형에 처하는 것은 “형”을 어긴 것이다. 진자양은 서원경의 행위에 대해 정문을 세워주자고 주장하였으므로 진자양은 서원경의 행위가 “예”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을 것이다. 다만, 진자양은 서원경을 사형에 처하자고 하였으므로 서원경의 행위가 “형”을 어긴 것이라 보았을 것이다.

오답 선지 해설:

② 5문단에서 호소할 곳 없는 백성에 대한 유종원의 염려가 나타났다. ③ 5문단에서 진자양은 보복살인의 악순환을 경계하였다. ④ 유종원은 서원경의 행위에 대해 정문과 사형을 동시에 집행하자는 진자양의 건의 내용을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⑤ 6문단에서 유종원은 서원경의 복수를 효의 실천으로 보아 “예”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

10. 밑글에 비추어 볼 때 예와 형에 관한 서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성인의 가르침과 제도가 훌륭한 전거가 된다.
- ② 예는 의를 좇는 이가 나아갈 바이자, 도리를 밝혀 상벌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 ③ 형은 해를 피하려는 이에게 의지가 되며, 사실을 기반으로 시비를 가리는 수단이 된다.
- ④ 형은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그것을 강제력으로 금지하여 합당한 행위를 유도하는 규칙이 된다.
- ⑤ 예는 무질서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처벌 법규인 형과는 서로 근본을 달리하는 규범이 된다.

[10번 문제해설] 정답: ⑤

정답 선지 해설:

2문단에서 “예”의 근본은 무질서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고 “형”의 근본 역시 무질서를 막고자 하는 것이라 하였으므로 예와 형은 근본을 같이 한다.

오답 선지 해설:

① 2문단에 따르면 “예”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는 성인의 가르침과 제도가 훌륭한 전거가 된다고 하고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예”는 의를 좇는 이가 나아갈 바이자, 도리를 밝혀 상벌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③ 2문단에서 “형”은 해악을 저지르지 말라고 하므로 해를 피하려는 이에게 의지가 되며, 마찬가지로 2문단에서 성인의 제도에서 도리를 밝혀 상벌을 정하도록 한 것은 “예”에 사실에 터 잡아 시비를 가리도록 한 것은 “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④ 2문단과 4문단에 따르면 형은 범죄 행위를 규정하고 그것을 강제력으로 금지하여 합당한 행위를 유도하는 규칙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11. 밑글에 나타난 유종원의 견해로 진자양의 입장과 대립하는 것은?

- ① 한 사건에서 죄에 대한 처벌과 예에 대한 포상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본다.
- ② 어떤 경우라도 부모의 죽음에 대해서는 복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③ 예에 합당한 행위에 대하여 형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 ④ 예와 형은 모두 존중되어야 할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 ⑤ 복수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

[11번 문제해설] 정답: ③

정답 선지 해설:

진자양은 서원경의 행위에 대해 정문을 세워주되 사형에 처하자 하였다. 이에 대해 유종원은 정문과 사형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면서 서원경의 행위는 예에 합치한 행위라고 하였다. 따라서 진자양은 예에 합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형을 부과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유종원은 예에 합당한 행위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형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